

# WORLD OF WARCRAFT

## WARLORDS of DRAENOR™



# 굴단과 이방인

미키 닐슨

알렉스 홀리

클렘 로빈스



# 굴단과 이방인

글  
마키 닐슨

그림  
알렉스 홀리

식자  
클렘 로빈스

미술 디렉터  
덕 알렉산더  
도움 주신 분: 글렌 레인

편집  
케이트 게리

표지  
알렉스 홀리, 마르코 사이프리아소

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
크리스 멧젠, 알렉스 아프라사비

역사가  
션 코프랜드, 저스틴 파커

이야기 개발 디렉터  
제임스 와우





어이, 이방인!  
무슨 일이냐?



헬스크림의 뜻을  
전하러 왔다.

말해라.

굴단에게  
직접  
전해야 한다.

당장 말해!  
그러지 않으면  
내가-

그만!  
내가 겁낼 게  
뭐가 있겠냐?  
들어보내라.



네,  
알겠습니다.

들어가라.



어서 와라.  
때를 잘 맞췄군...  
내가 이 세계를 초월하는  
모습을 지켜봐라.

수호자의 축복이  
지금 내 핏줄을 타고 흐른다.  
이제 곧... 너도 보게 될 것이다.  
그래, 그롬마쉬가 뭐라고 했지?

헬스크림은  
네 목적이 무엇인지  
알고 싶어한다.



내 목적?  
이것 하나만은 맹세하마.  
네가 내 곁을 떠날 때가 되면,  
내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 
알 수 있을 거다.



난 두루마리에  
적힌 글귀를 읽었다.  
우리 종족의 새 시대가  
밝아오는 것을  
목격했다. 정의로운  
불에 의한 시험을...

이 두 눈으로 봤다...  
**으아아아아!!!**

나는  
**군단을**  
봤다...

셀 수 없는  
병력이 세계를 불태우고,  
복종시키고,  
정복하는 모습을...

막을 수 없는  
파괴의 현신을 봤다.  
우리는...  
그 선두에 서는 영광을  
누릴 것이다!

그래?  
그렇다면 그 "영광"의  
대가는 뭐지?



복종을  
맹세해야한다...

그 주인은  
누구인가?

주인이라고? 아니...  
구원자다! 인도자다!  
영겁의 세월을 넘어  
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 
내게 또 하나의 눈과  
지혜를 주시고...

이 세계가  
한 번도 보지 못한  
마법을 주시고...

진정한 **힘**을 향해  
갈 길을 보여주셨다.

강대한  
정령들까지도  
빛바래게  
할 힘이다.

악마의  
피를 마시고  
손에 넣는  
힘인가?

누구에게 들었지?  
아니, 상관 없다.  
무슨 저주받은 생물  
따위의 피가 아니다...

고귀한 자,  
만노로스의  
피다!

그분을 영접하고  
끝을 모르는 힘이  
무엇인지  
깨달았다...





그분의 피가  
네 핏줄을 타고 흐르면,  
급힐 줄 모르는  
강대한 신의 힘이  
네 것이 된다.



그 힘으로  
뭘 할거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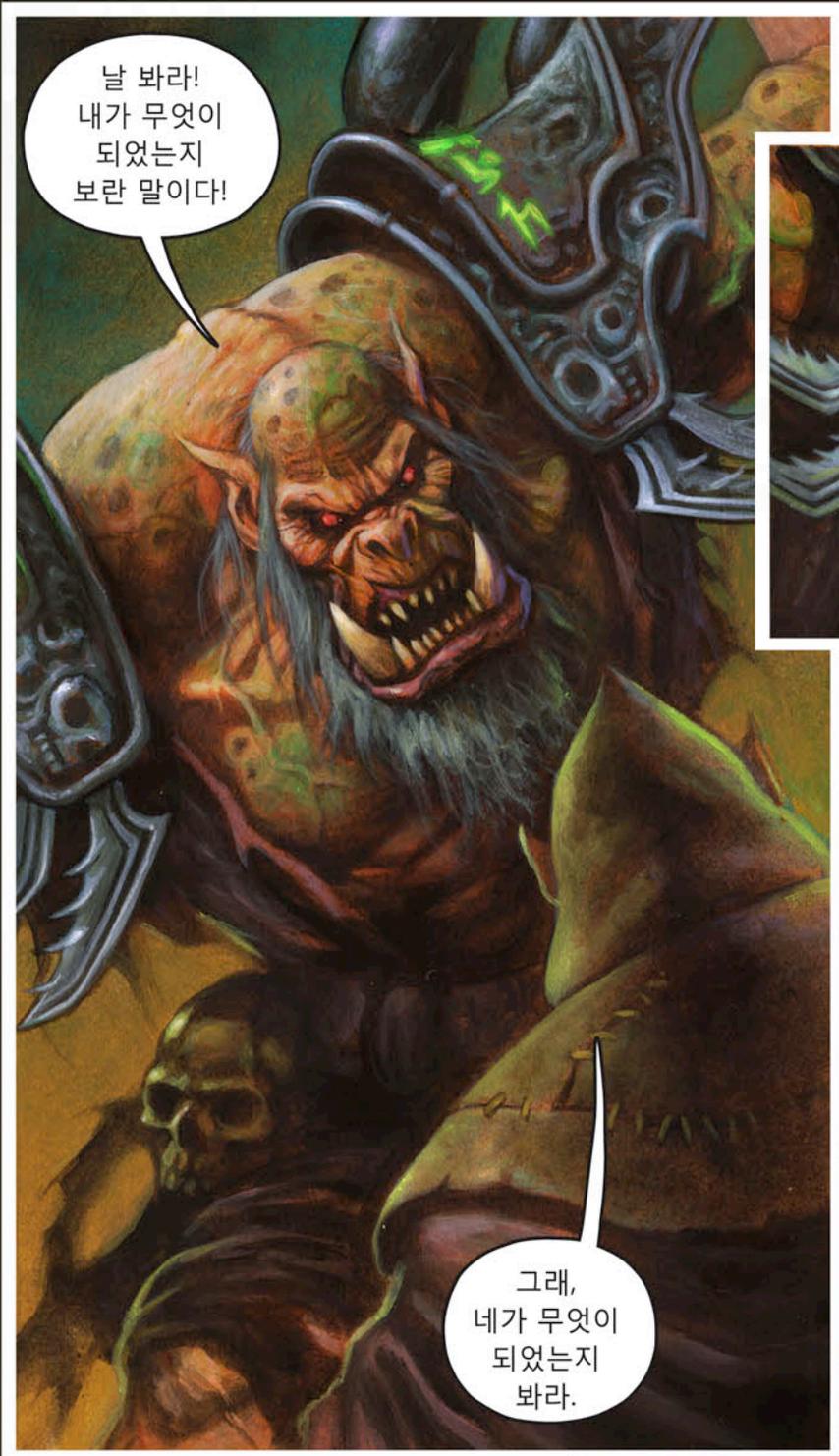


무엇이든 할 수 있다...  
거역하는 자를 짓밟겠다.  
열등한 종족들을 박멸하겠다.  
이 세계를 온전히  
지배하겠다.



그리고 우리는  
노예가 되겠군.

우리는 불굴의  
투사가 된다!



날 보라!  
내가 무엇이  
되었는지  
보란 말이다!

그래,  
네가 무엇이  
되었는지  
보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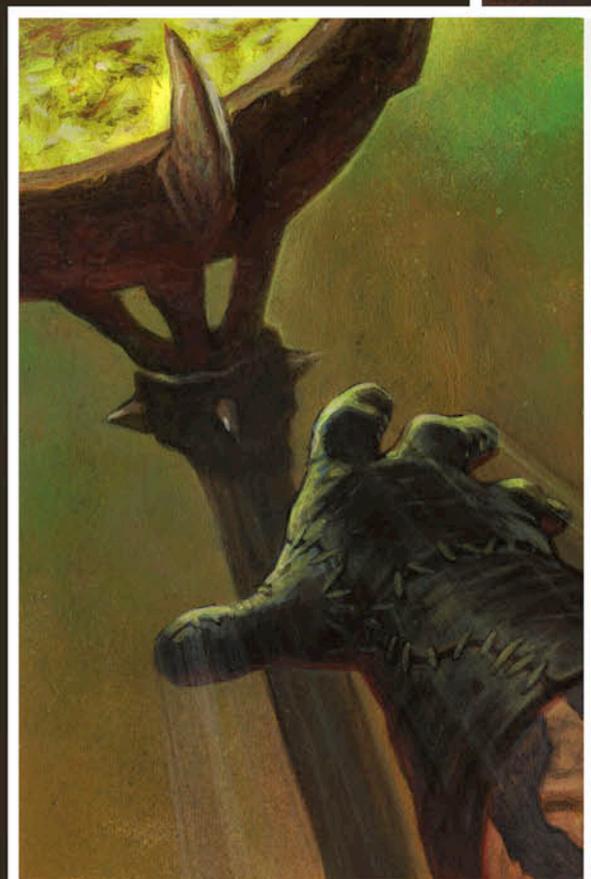
나는  
신이다!

사슬에 묶인  
신이지.



그것이  
그롬마쉬의 뜻인가?  
잘 알았다.

경비병!  
이 이단자를  
끌어내라!



**치이익**



서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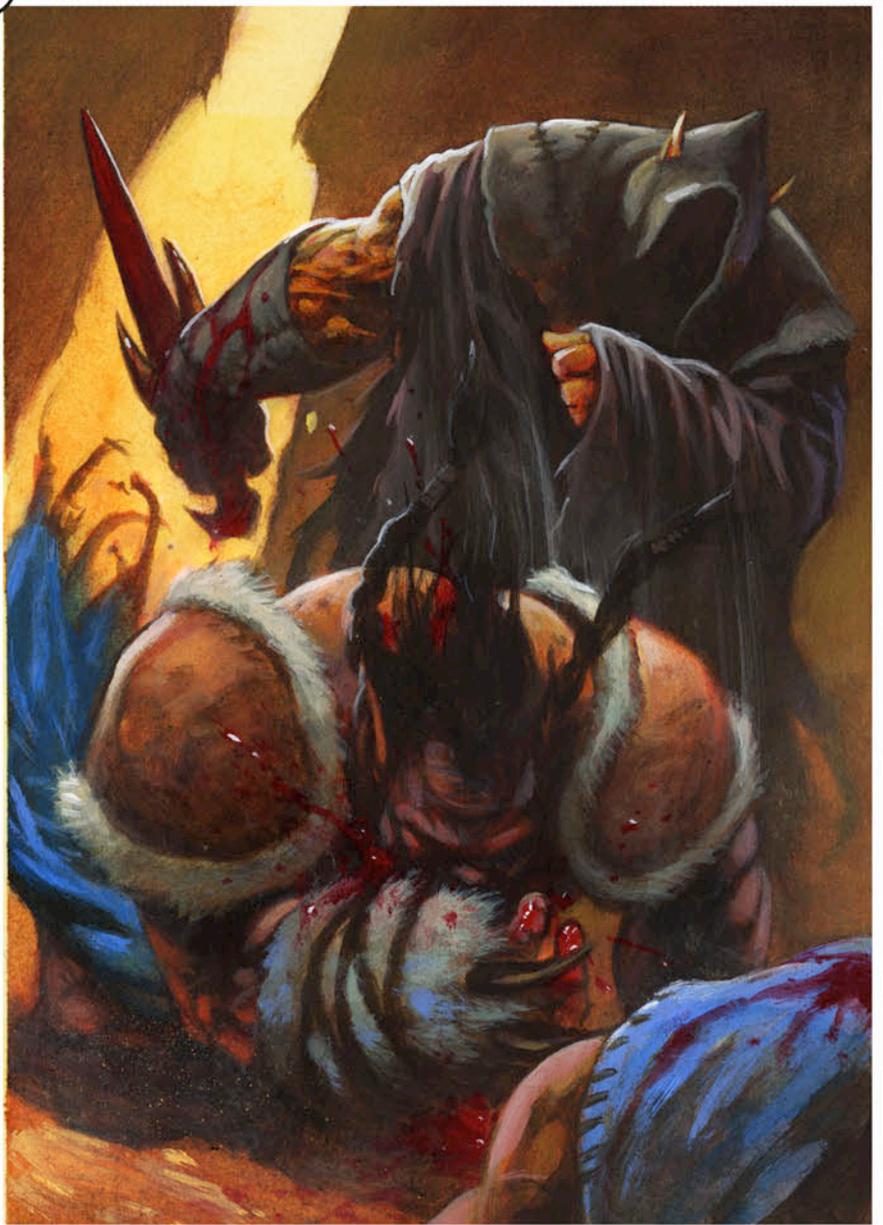
콰직



흐억!



콰각!





애송이 주제에  
재주가  
나쁘지 않구나.  
이제 날 죽일  
테냐?

아니면  
정복자의 길을  
선택하겠느냐? 네가  
얼마나 더 강한 존재가  
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.  
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  
생각해 보라.



내가  
여기 온 이유는  
말했을 텐데. 네 목적을  
가늠하려는 거다.

그렇다면  
기억해 뒤라. 3일 후,  
우린 그 산 위에 집결한다.  
그곳에서 만노로스의  
피를 마시고...  
깃발을 드높이 휘날리며  
전진할 것이다.

영광을 향하여!  
승리를 향하여!

그롬마쉬의 뜻을  
알아야 겠다.  
헬스크림은 형제들과 함께  
우리 종족의  
새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?  
아니면 우릴 기다리는  
운명으로부터  
겁쟁이처럼 도망칠  
것인가?



난 많은 것을 보았다.  
그리고 네가 맹세했듯이,  
이제 네 목적이 무엇인지  
분명히 알았다.

헬스크림도  
그 산 위에 함께할 것이다.  
그곳에서, 모든 오크는  
**받아들일** 것이다...

우리의  
**진정한**  
운명을.